

2017학년도 제 1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15:00~17:3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정현식 (위원장)
양미경 (학생문화처장)
윤권석 (기획예산팀장)
이도행 (학교법인 법무감사팀 공인회계사)
김천일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정진성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김종혁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원석 (주간MBA 원우회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배 석 : 김남진(간사),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확인 및 심의 보고자료 내용 해설

-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하고, 등록금 상한선(1.5%)을 확인하고, 등록금 책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물가인상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교육비 수준 등)을 확인함
- 위원장이 2015년 결산 및 2016학년도 회계 가결산, 2017학년도 예산 편성안을 중심으로 등록금 심의 보고 자료를 설명함
- 2017학년도 재정 전망 및 리스크 요인 설명함

2. 등록금 심의 관련 위원 발언

윤권석(기획예산팀장)

보수, 학생경비는 삭감하기 어렵고 관리운영비는 최저임금 연동돼서 계속 인상되고 있음. 다른 학교는 기금이 늘고 있는 반면, 우리학교는 기금이 줄어들고 있음. 등록금 재원으로는 부채상환, 감가상각 만큼 건축기금 적립만 가능함. 현재 우리학교는 그게 불가능하며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임. 기부금은 특정 목적으로 써달라고 기부하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함. 각 단위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을 배분할 재원이 부족함. 각 단위 부서에 장학금을 삭감하지 말라고 통보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김천일(학생회 비대위원장)

등록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예산의 사용처가 나와야하는데, 그게 안나온 상태에서 심의가 불가능함.

정현식(위원장)

2016년에도 적자 예산을 편성 했음. 최소한 감가상각을 충당할 수 있어야하므로 2017년에는 흑자는 아니더라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게 목표임. 학교회계의 지출은 경직성이 높음. 보수, 연구학생 경비 중 장학금도 비율이 정해져있음. 관리운영비에서 2014학년도 중 5%를 줄이고, 2015년에 20%, 2016년에 10%를 추가로 줄여 과거에 비해 약 30% 삭감함. 용역비도 과거에 비해서는 인상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더이상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등록금을 책정을 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숫자는 가늠할 수 있음.

김천일(학생회 비대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봐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등록금 심의를 할 수 없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경영전문대학원을 비롯하여 대학원 충원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함. 과거하고 달리 각 대학원에 충원계획을 제출받아 분석을 하는 등 세밀한 작업이 많아 예년 보다 예산 편성 작업이 늦어지고 있음.

정현식(위원장)

금일 등심위 하는게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예년보다 설연휴와 이사회가 앞당겨져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었음.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로 진행하고 다음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아 그 때 까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고자 함.

윤권석(기획예산팀장)

학교에서 수익을 다변화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함. 등록금의존율을 보면 등록금의 2배정도 지출을 하고 있음. 산학협력단, 기부금등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등록금 재원만으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 등록금 재원은 학생들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임.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교비로 전출을 해서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을 충당 하는데 정부의 연구지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지원 사업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기타 특수과정, 비학위과정 간접비와 나머지는 기부금에 의존함. 기부금은 기부자들이 장학금이나 건축 목적으로 대부분 기부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감액하고, 적립금을 줄여 당장은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졸업후에 피해가 갈수있음. 교수님들 중 다른학교로 떠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새롭게 우수교원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현식(위원장)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추가 질의하기 바람.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시행세칙이 많이 부족함. 총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도 세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세칙을 만드는게 필요하다 생각함. 이나시오 대강당에서 회

의할 때 문제점으로 얘기 나왔던게 이사 8명만이 토의를 하는 것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을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현식(위원장)

지금까지 규칙상에서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겪은적은 없음.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위원 외에 도와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건지 여부를 정해야함.

정현식(위원장)

이런 회의에서 배석을 하는 경우가 없음. 지금까지는 회의 후 학생들, 대의원끼리 회의를 하는 등으로 진행되어 이슈가 된 적이 없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가예산이 나오고 실제예산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건 알겠음. 알고싶은건 수입으로 잡히는게 등록금 말고 비등록금 수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등록금 외에 비등록금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알아야 함. 재단, 산학협력단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등을 알아야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예상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심의할 수 없음.

정현식(위원장)

예산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중요한 항목들은 보여줄 것임.

윤권석(기획예산팀장)

단위 부서에서 온 것들 취합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시간이 소요됨. 대략적으로 하면 가예산 숫자가 빨리 나올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고자 함.

김창배(외부위원)

다음번에 가져올 자료는 더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가치분소득이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볼 때 경제상황이 더 나아질 수 없음. 지출은 예측치가 거의 맞음. 수입이 안들어오는걸 우려해야함. 낙관적으로 볼 경우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음. 현실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비용을 더 강하게 감축하고, 인센티브를 높여 연구비를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 방법 정도가 플러스 요인이고 나머지는 플러스적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짜야한다고 생각함.

정현식(위원장)

적자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균형예산을 편성해야함. 학생들에게 나가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2 유형과 연계가 되고, 임금도 학교가 맘대로 정할 수 없어 무조건 삭감하여 예산을 짜는건 무책임한 것으로 보임. 법인 전입금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명예퇴직도 이사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실시를 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관용차를 교체하지 않고 예비비를 줄이는 등 어떻게든 관리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함. 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일 때 학생들한테 돌아가는게 줄어들까봐 걱정되는게 당연함.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다음회의에 준비하겠음.

이원석(주간MBA 원우회장)

주간 MBA는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등록금을 많이 내는데, 다른대학원과 비교해봤을 때 장학금이 지나치게 낮음. 조정을 해줬으면 함.

정현식(위원장)

전문대학원은 자율예산으로 예산 배정 공식에 따라 총액내에서 경영전문대학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함. 경영전문대학원 충원율이 낮아져 총액이 줄어들었음. 원우회에서 학장님께 건의할 수 있을거라 생각함.

윤권석(기획예산팀장)

충원율이 낮아지다보니 전체 예산이 줄어, 고정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배분할 수 있는 변동비용이 줄어듬. 대학원 차원에서 충원율을 개선하고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예산팀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정현식(위원장)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이번에 강의료를 대폭 삭감하였음. 그렇다고 해서 개설과목수를 줄일수가 없음. 과목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장님이 교수님들을 설득해서 단가를 많이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평상시 학장님과 원우회 자리가 있을 때 요청을 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임.

김창배(외부위원)

등록금 의존율은 미스리딩 할 수 있음. 자본 항목을 제외하고 봐야함.

정현식(위원장)

미스리딩할 수 있는 수치라, 최근에 실제 운영을 보여주는 일반회계를 분석함. 등록금, 전입기부금 같은 실제 수입 위주로 분석함.

김창배(외부위원)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으로 보여짐.

정현식(위원장)

국고 지원금처럼 운영에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을 제외하여 학교운영을 보는 것이 일반회계임. 국고 지원, 연구비등은 교육, 연구에 투자되어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국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학교가 할 수 있는 수입 다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일반기업하고 다르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입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음

정현식(위원장)

국고를 받으면 전부 교육과 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는 사용할 수 없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학부 인원이 줄어서 등록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는 CK 등의 사업에서 국고지원금을 얻기 위한 것도 있으니 등록금 외 국고지원금도 같이 논의해봐야 합당하다고 생각함. 다음 자료에는 등록금 외 국고지원금 같은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함.

윤권석(기획예산팀장)

특성화사업, LINC, ACE 등 여러가지 국고 지원 사업이 있음. 국고사업을 하면 특정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학생들 교육에 전부 투입되도록 하고 있음. 국고사업은 특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운영하고 관리되고 있음. 국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교육의 질 유지가 가능함.

정현식(위원장)

예를들어 ACE사업이 종료되면 글쓰기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음. 학교 운영만 생각할 수는 없고 교육 측면에서는 국고사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차기 총장님의 공약과 발전계획이 예산에 반영되는지.

정현식(위원장)

장기 프로젝트까지 반영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기금 인출 수입이 무엇인지.

정현식(위원장)

과거에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위해 적립한 것을 인출한 것임. 적립한 돈을 인출하는 것이 회계상 수입으로 잡히게 됨.

김창배(외부위원)

기금을 인출해서 쓰는게 문제가 없는지.

정현식(위원장)

기금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은 문제 없음.

김창배(외부위원)

특정 목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돌려달라고 한다면.

정현식(위원장)

특정목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돌려달라고 하면, 아직까지 발생한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회계상 지출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맞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학교에서 예산편성시 그걸 기부자 의사에 반해서 다른용도로 쓸 수 없음. 기부자의 동의를 얻으면 목적 변환을 하는 것이지 학교 임의로 바꿀 수 없음. 기부금법에도 명시된 사항임.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임의기금 수입이90억, 인출이 120억으로 되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명칭이 임의기금이라고 되어있는 것이고 연구, 장학, 건축 목적으로 지정되어있는 기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정되어있는 발전기금 등을 말함.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논문심사비가 비등록금 회계 수입만 있고, 등록금 회계 지출이 있는데 무엇인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확인 후 알려주겠음.

김창배(외부위원)

2015년 자금계산서를 보면 수입과 지출이 1,950.8억임. 만약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이라는 수입이 생기고 현금이 생김. 받은 기부금 지출은 어디에 나타나는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투자기타자산 지출에 있음. 기업회계와 다르게 이익잉여금이란 계정이 없고,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춰야함. 그부분이 투자기타자산에 반영됨.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투자자산인 주식이나 회사채 매입등의 개념과 다름.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법인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법인에서 지급하는지.

이도행(법인추천위원)

직원 업무에 따라 법인일반회계와 법인수익회계에서만 주고 있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주신 자료에는 마치 우리학교 등록금이 낮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학알리미에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을 계열별로 보면 검색해보면 우리학교가 낮은게 아님. 공대, 인문 모두 상위권에 있음. 등록금을 적게 내는편이 아님. 등록금 계산할 때도 계열별 편차를 있는걸 감안해야 함.

정현식(위원장)

계열별 평균을 비교해보겠음. 학교마다 계열별 편차는 있음. 대학원의 경우는 타대학원보다 다소 낮게 책정된 경향이 있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대학운영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가 똑같이 적용됨.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학교에 비해 고정 비용 충당에 어려움이 있음. 예를들어 타 대학의 재학생 수가 4배라고 하더라도 직원수가 4배가 아님. 그런 점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이원석(주간MBA 원우회장)

MBA 등록금도 학기제를 고려해야함.

정현식(위원장)

전체 재학기간 중 등록금으로 비교해야 함.

윤권석(기획예산팀장)

학사제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기 어려움. 학생들이 학장님께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비등록금 회계 중 선교비는 어떤 항목인지.

정현식(위원장)

교목처에서 사용하는 비용임.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비등록금회계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선교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현식(위원장)

성당이 있어서 생기는 수입 측면과 건학이념 같은 것을 같이 고려해봐야 할 것임.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비등록금 수입으로는 선교비가 없는데 지출에만 있음.

정현식(위원장)

예를 들어 성당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시설사용료 등으로 잡힐 것임.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일대일 대응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

윤권석(기획예산팀장)


수입부서와 지출부서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님. 단위부서별로 나눠놓은 것은 관리회계나 실적평가 등을 위해 나눠 놓은 것으로, 오히려 하나의 단위로 통합시킬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3. 차기 회의일정 결정


-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1월 2일(월)에 진행하기로 결정함

2017.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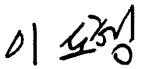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정현식 기획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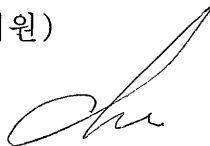
(교직원 위원)


양미경 
학생문화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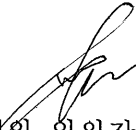
윤권석 
기획예산팀장


이도행 
학교법인 법무감사팀

(학생위원)


김종혁 
대학원총학생회장

이원석 
주간MBA 원우회장

김천일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정진성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외부전문가)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